

전일동향

매파적 FOMC에... 1,381.50원에 마감

17일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 1,368.60원(15:30 기준) 대비 8.40원 상승한 1,377.00원(06:00 기준)에 개장했다. 미 연준이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1,381.50원에 증가(06:00 기준)를 기록했다. 일간 장중 변동 폭은 14.9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82.84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77.00	1388.20	1373.30	1381.50	1380.30
	엔화	879.16	890.70	878.92	882.84	-
	유로화	1575.13	1592.03	1573.72	1581.22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35	-2.24	-5.94	-13.47
	결제환율(수입)	-0.09	-0.96	-3.81	-9.94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국제유가 안정에...1,38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6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82.20, 15:30 기준) 대비 1.25원 하락한 1,380.3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국제유가 안정으로 하락 전망한다. 간밤 사우디가 원유 수출을 위한 대안 경로를 찾았고, 예멘 후티 반군에 2주 휴전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제유가와 미 국제금리가 하락했다. 또한 금일 예상되는 BOJ의 매파적 기조 또한 원화에 우호적인 재료로 작용할 공산이 커, 금일 환율은 하방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석 연휴를 앞둔 수출업체 네고물량의 유입과 지속되는 반도체 기업의 원화 환전 수요도 원화 강세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다만, 수입업체 저가매수 물량의 유입은 환율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72.25 ~ 1385.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6320.88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25원 ↓
	■ 美 다우지수 : 51778.04, +316.14p(+0.6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92.26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11 억원